

진도군 조도권역 여객선 잇단 취항

진도~창유 550t급 8월, 쉬미~가사도 160t급 12월 운항 섬 체류 관광 인프라 해상 교통망 확보...지역경제 활성화

진도군이 조도권역 해상 교통망 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군은 조만간 진도와 조도를 오가는 여객선을 운항하는 등 섬 체류 관광 인프라를 구축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진도군은 "원활한 해상 교통과 조도권역 관광객 유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553톤급 진도항-창유항간 여객선을 오는 8월부터 투입·운항한다"고 28일 밝혔다.

진도군은 총 60억원을 들여 최첨단 시

설을 갖춘 차도선 선박 1척을 7월 말까지 건조하고, 시험운항 등을 거쳐 정기항로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사진>

여객선이 본격 취항하면 조도권역 체류 관광 인프라 구축과 함께 지역주민 해상 교통 편의 제공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게 진도군의 설명이다.

서진도농협이 운항하게 될 이 선박은 전장 68m, 최대폭 15.5m, 깊이 3.2m이며, 최대속력 15노트(28km)이상으로 승객 300



명 탑승이 가능하다.

군은 또 가사도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 위해 가사도 차도선도 건조해 투입한다. 쉬미항-가사도 항로에 투입되며, 국비 100%인 38억원을 들여 160톤급 규모로

올해 말 선박 건조를 완료한 뒤 12월부터 본격적인 운항에 나설 계획이다.

진도군은 지속적으로 해상 교통망을 구축해 청정 자연 등 섬과 갯벌, 해수욕장 등 비교유위자의 접근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지속적으로 중심 도로망과 해안도로, 해상교통 등 지역 성장 기반 시설 확충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도서개발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면서 "장기적으로는 해상 교통망 확보로 진도군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완도군 황칠 관광 연계 6차산업화 간담회

완도군은 "최근 군정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황칠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완도군과 산림조합, 황칠협회, 묘목 및 제품 생산자 등 황칠 관계자들이 참가해 완도황칠의 현 실태와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황칠 관계자들은 "황칠의 주산지답게 황칠조림 및 재배는 날로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전국적 인지도가 부족하다"면서 "묘목 판매와 진액생산 등 단순한 1차원적인 생산에서 벗어나 고부

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완도군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완도 황칠 지리적표시 증명표장과 완도황칠 연구용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전국적으로 황칠의 주산지는 완도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군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1, 2차 산업에 머무르고 있는 황칠산업을 체험·관광을 아우르는 황칠 6차 산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진도 의신천에 어은 10만마리 방류

이동진(오른쪽) 진도군수는 최근 진도 의신천에서 자연생태 복원을 위해 어종 10만마리를 방류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생으로 먹는 해남 초당 옥수수 아시나요

당도 높고 아삭한 맛 인기

생으로 먹는 옥수수인 해남산 '초당 옥수수'가 본격 수확돼 눈길을 끌고있다.

초당 옥수수는 1990년대 후반 일본에서 개발된 간식용 풋옥수수로 일반 옥수수에 비해 당도가 매우 높아 초당(超糖·super sweet corn)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특히 과일 못지 않은 높은 당도와 아삭한 식감으로 생식섭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웰빙 간식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수분 함량이 높아 대부분 생으로 먹고, 별도의 감미없이 샐러드나 구이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해남군은 올해 13ha 면적에서 초당옥수수를 재배해 120톤(30만개)을 생산할 계획이며, 전량 계약재배를 통해 유통 업체로 수매되고 있다.

해남산 초당옥수수는 엄격한 재배관리와 선별로 무게 400g, 20브릭스 이상 당도의 최상품만을 출하하고 있어 최고의 품질



해남군 금당리 김성일씨의 농가에서 초당 옥수수를 수확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을 인정받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초당 옥수수 재배를 시작한 김성일(54·북일면)씨는 "재배하기 까다롭지 않고, 수익성도 높아 농민들의 관심도 매우 높은 작목"이라며 "해남산 초당 옥수수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완도교육지원청 수학여행 결과 공유 협의회

완도교육지원청(교육장 조숙희)은 "지난 26일 1학기 수학여행 실시교를 대상으로 '실시 결과 공유 및 점검을 위한 협의회'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1학기 중 수학여행을 실시한 19개교(초 10개교, 중 5개교, 고 4개교)를 대상으로 수학여행 지원단 10명과 함께 현장체험학습 실시 결과 공개 여부 점검, 우수사례 및 보완점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완도 금일고 박이화 교사는 이날 사례 발표를 통해 "수학여행기간 중 1일은 '자유여행데이'로 정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가

고 싶은 곳, 체험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팀별로 자율 운영했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다"면서 "진로탐색 및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해 탐방 신문, 동영상 등을 제작하고 별도의 자체 발표회 시간을 가졌으며, 현재는 사진 전시회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조숙희 완도교육장은 "앞으로도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수학여행 계획을 수립하고, 자율적이면서도 알찬 수학여행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유영걸(왼쪽 두번째) 해남군수권대행이 최근 신리마을 다단양수 현장을 찾아 어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해남군 농경지 다단양수 가뭄극복 안간힘

해남군이 가뭄 피해를 막기 위해 1km가 넘는 지역에서 물을 끌어오는 '4단계 양수'를 실시하는 등 영농철 농업용수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28일 해남군에 따르면 현재 해남지역의 전체 저수지 375개 저수지 중 절반이 넘는 226개 저수지가 50% 미만 저수율로 농업용수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

해남군은 특히 모내기가 대부분 완료된 가운데 지속적인 물공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용수원에서 농경지까지 수차례 단계를 거치는 다단 양수까지 동원되는

등 가뭄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남읍 장활리 일원 6.6ha 농경지는 4단계의 양수장비가 가동돼 고천암호의 물이 흐르는 신리마을에서 1.2km 떨어진 장활 저수지까지 공급되는 물을 받고 있다.

또 남천 마을의 경우 1.1km 거리의 길호양수장에서 관로를 통해 배수로로 공급된 농업용수를 2단 양수해 남천저수지에 물을 채운 후 다시 용정저수지까지 다단 양수하는 방식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완도군 내달 15일부터 해변공원에서 토요일 싱싱 콘서트

완도군은 "오는 7월 1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완도 해변공원 일원에서 매주 토요일 싱싱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완도군은 다양한 문화공연과 함께 관광객 상싱가왕 선발, 지역민 노래자랑, 광어·전복 경매 이벤트와 SNS이벤트를 통해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군은 또 관광객들이 음식점, 휴센터, 전복판매업소, 건어물 판매업소 등을 싸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싱싱쿠폰'을 발행한다. 완도군은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는 나눔의 대안 장터인 '장보고 웃장'도 함께 열 예정이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세일글

"기본 충실...인권의식 높이기 집중"

김선권 완도경찰서장

"완도군민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힘을 보태고, 인권을 중시하는 완도경찰이 되겠습니다"

지난 26일 제71대 완도경찰서장으로 취임한 김선권(48) 신임서장은 "완도군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완도경찰을 만들겠다"면서 "특히 인권경찰로 거듭

나기 위해 직원들의 인권의식을 높이는 데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김서장은 전복 익산 출신으로 경찰청 정보화장비기획계장, 광주청 생활안전과장 등을 지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상담후 결정

■ 주인직매

H. 010-6838-1230

급매 합니다. 주인직매 H. 010 - 3605 - 5000

인터넷으로 위치 확인후 전화요망

신안동, 해송빌라

- 광주 북구 신안동 353-16
- 21평, 5층중 3층, 2012년 신축
- 방3, 거실1, 전방좋은, 즉시 입주가능
- 신안다리 바로 옆, 내부깨끗
- 시세 - 1억 2천만원
- 매매 - 9천 9백만원

전원주택, 토지

- 장성군 동화면 남산리 1073-7
- 대지128평, 계획관리지역
- 문화마을 전원주택내 위치
- 첨단에서 20분 거리
- 현, 36세대중 25세대 거주
- 전기 수도등 기반시설 완비
- 매매 - 7800만원 (조정가)

광양, ㅅㅅ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 중동 락희호텔 근처
- 6층 중 4층 전체, 2012년 신축
- 210평 (실평 147평)
- 모든업종 오픈 가능
- 감정/시세 - 13억
- 매매 - 7억 8천만원 (조정가)

나주, ㅅㅅ 상가주택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대지42평, 건물24평, 창고15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 대로변 접합, 위치 좋음
- 급매 - 4200만원 (일시불 조건)